

# HEREN

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

JULY 2015



## LIVING IN NATURE

영국 첼시 플라워 쇼&가든 산책  
Meet the New York Jewellers  
하와이,나오시마... 섬으로 떠난 여행



Rendez-Vous Night & Day watch  
Carmen Chaplin, Actor and Director

  
**JAEGER-LECOULTRE**

Open a whole new world



# WHAT'S HOT

# NO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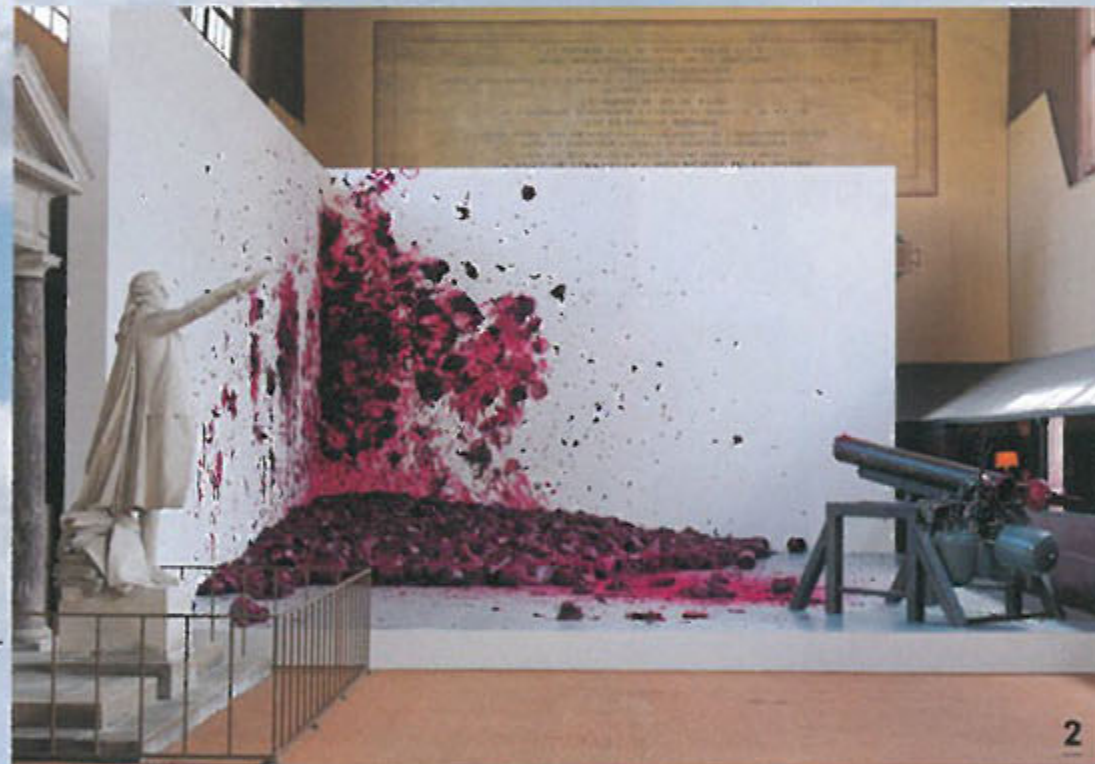
editor  
정승혜

## PARIS

### 베르사유 궁에 인 파문

매년 여름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초청해 그 유서 깊은 공간에 세계적인 작품들을 '턱'하니 풀어놓게 했던 베르사유 궁. 제프 쿤스, 무라카미 다카시, 이우환 화백에 이어 올해는 영국의 아티스트 아니쉬 카푸어(Anish Kapoor)가 낙점되었다. 그러나 그의 이번 전시는 곧 예술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. 아니쉬 카푸어가 인터뷰에서 전시 작품 중 하나인 '더러운 모퉁이(Dirty Corner)'를 권력을 쥔 왕비의 질에 비교했는데, 영국과 역사적으로 앙금이 많은 프랑스인들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칭한 것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한 것.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아니쉬 카푸어의 실내작 1점과 '하강(Descention)', '하늘의 거울(Sky Mirror)' 등 5개의 야외 설치 작품을 보기 위해 베르사유 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. 이와 더불어 정원에는 조경사 루이 베릭과 장 미셸 오토니엘의 협업으로 탄생한 '물의 극장의 숲'도 전시되니, 놓치지 말길.

**writing** 정재훈(파리 통신원) **add** Chateau de Versailles, Place d'Armes, 78000 Versailles, Paris **tel** (33)1-30-83-78-00 **web** www.chateauversailles.fr



2 3



1 'Sky Mirror' ©tadzio  
 2 'Shooting' ©tadzio  
 3 'Descention' ©tadzio

